

# 레퍼토리·작곡가 예습...클래식이 들려요

### 광주시향 첫 '클래식 토크' 호응

### 공연 당일 한시간 전 강의 음악·인문학적 지식 유익 체계적 클래식 강좌도 필요

지난 16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 교향악단 신년음악회 현장. 김영연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날 공연의 첫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이었다. 흥겨운 왈츠 선율이 어쩔지 더 귀에 감기는 듯했다.

이어 장우리씨가 연주하는 엘가의 '첼로협주곡', 우수에 찬 멜로디를 이어가는 그녀의 연주에서 이 곡을 자주 연주했던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두 곡 모두 실제 연주를 듣기 전 작품의 주 선율과 작곡가·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친숙하게 느껴졌다.

이날 공연 전 문화회관 리셉션장에서는 광주시향이 주최하는 '클래식 토크'(사진)가 열렸다.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만날 레퍼토리와 작곡가들에 대해 미리 예습해 보는 시간이었다. 한시간 후면 바로 라이브로 들게 될 곡들에 대한 설명은 흥미로웠다.

'클래식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객들은 의외로 많았다. 아이와 함께 참여한 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강의를 맡은 이는 최유준(46)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감성인문학연구단 HK교수. 최 교수는 '박쥐'를 소개하며 왈츠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김영연이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던 경기 모습과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에 깔린 '박쥐' 연주도 들려주며 흥미를 돋웠다.

작곡가 엘가의 불행했던 삶,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했던 시대에서 탄생한 '첼로협주곡'과 불운한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드보르작의 '신세계'는 미국의 흑인 음악, 인디언 음악과의 연관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자클린 뒤프래의 삶을 그린 영화 '힐러리와 재키'에서 연주되는 엘가의 첼로협주곡을 들려주며 한시간 남짓한 강의는 끝났다. 음악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이 어우러진 강의였다.

'클래식 토크'는 광주시향이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관객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참여한 사람은 약 70여명. 좌석을 차지하지 못해 서서 강의를 듣는 이들도 있었다.

이쉬운 점도 있었다. 강의 장소가 오픈된 공간이라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들어 애써 준비한 강의 자료들이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시향에서 '클래식 토크' 같은 단발성 프로그램 이외에 아예 체계적인 클래식 강좌를 집중적으로 진행해도 좋을 듯했다.

'클래식 토크'는 앞으로 최 교수와 함께 전남대 작곡가 환경진 교수가 번갈아 맡게된다. 올 한해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연주회가 대상으로 오후 6시20분부터 7시10분까지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클래식과 친숙해지는 데 필요한 강의”

### '클래식 토크' 진행 최유준 교수 음악 사이트 '웹 미디어 樂' 운영

광주시향의 '클래식 토크'를 이끈 최유준(45) 전남대 감성인문학연구단 HK교수는 대학에서 음악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너무 수준을 낮추면 시시하게 생각되고, 이제 막 클래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편차가 꽤 크더라고요.”

최 교수는 지난해 말 강의 제안을 받고 흔쾌히 응했다. 사람들이 클래식과 친숙해 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했고,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서였다.

“제 자신에게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참여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관심있게 들어 주시는 모습들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첫 시도라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오늘 진행하고 나니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최 교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서울대와 동아대에서 음악미학과 음악학, 문화연구를 전공한 최 교수는 '월간 객석' 등을 통해 음악평론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 '음악문화와 감성정치', '예술음악과 대중음악, 그 허구적 이분법을 넘어서' 등이 있으며, '지식인의 표상', '아도르노의 음악미학', '뮤지킹 음악하기' 등도 번역했다.

“최근에는 클래식 뿐 아니라 대중음악, 국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최 교수가 운영하는 '최유준의 웹 미디어 樂'(musicology.co.kr)에 들어가면 클래식 뿐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된 '토토'가 '미생'의 OST 등 대중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룬 글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해 음악평론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 '음악문화와 감성정치', '예술음악과 대중음악, 그 허구적 이분법을 넘어서' 등이 있으며, '지식인의 표상', '아도르노의 음악미학', '뮤지킹 음악하기' 등도 번역했다.

## 미술프로젝트 후 발산 마을에 무슨 일이

### 광주 서구문화원 '빛고을 문화' 29호

광주 서구문화원이 발행하는 문화잡지 '빛고을 문화' 29호가 나왔다.

이번 호 테마특집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서구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살핀다. 문화기획자 신호윤씨가 '발산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글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발산 마을의 모습을 담았고,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이 '마을 만들기, 방향성 정립을 먼저 해야'를 주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윤천저수지, 풍암호수, 매월저수지 등 서구에 위치한 호수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제5의 계절을 만끽하며, 1시간을 천년처럼 걷다', 갤러리 아크, 스페이스K-광주 등 갤러리를 소개하는 '서구 특색 있는 갤러리 눈길' 등 글이 함께 담겼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서구의 인물에는 회재 박광옥 선생이 선정됐고, 문예마당에서는 시인 서복현씨의 '버찌줍는 아이들', 시인 이겨울씨의 '카츄샤, 그리고 스키프' 등 시 4편이 실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시·소설 쓰기 도전해 보세요

### 생오지문예창작촌, 문예대학 수강생 모집

신인 문학인의 산실로 명성을 높여온 (재)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이 2015년 도 문예창작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생오지문예창작촌과 광주문화재단의 MOU(업무교류협약)에 따라 강의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다.

2년 과정의 문예창작대학은 시 창작, 소설 창작, 소설 창작등단, 수필 창작, 글쓰기종합 등 5개 과목으로 오는 3월 7일(오후 2시) 빛고을문화회관에서 입학식을 갖고 매주 수업을 진행한다. 각 반 정원은 30명이며 소설 창작 등단반은 15명이다. 교수진은 문순태·은미희·심영의·장마리

작가가, 시는 박순원·김성철 시인이 맡는다. 수필과 글쓰기 종합은 각각 오덕렬 수필가와 윤삼현 작가가 맡는다. 글쓰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단 소설 창작 등단반은 작품(단편소설 1편)을 제출(river1967@naver.com),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기존 수강생은 2월 1일~7일까지, 신규 수강생은 2월 8일~28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Url: //cafe.daum.net/moonsontae)로 가능. 문의 061-381-2405. /박성천기자 skypark@

## 여성주의와 가족

### 광주여성재단 '여성...' 5호

광주여성재단 소식지 '여성, 세상과 통하는 길' 통권 5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여성주의와 가족(안경주 전남대 인류학과 강사), '장년+여성, 일과 자리'(서민정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

센터장)를 실었으며 여성친화도시 해외 탐방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사례를 살펴봤다.

또 전애실 아시아문화개발원 팀장이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글을 실었으며 백희정 광주여성민우회 대표가 '여성성 체감하는 안전한 택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밖에 광주여성재단이 운영하는 젠더포럼에 대한 글도 실렸다. 문의 062-670-0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작가회의의 23일 팽목항 방문

한국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위원장 이시백)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팽목항과 안산을 방문한다.

작가회의의 이번 방문은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과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작가의 창작과 기록 속에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보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방문에 함께 하는 작가회의 전 이사장

정희성 시인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해를 넘긴 채, 주검으로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아홉 명이나 된다"며 "이 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선제 인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가회의는 추모사업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실천문학) 출간, 100일 추모 문예제 '네 눈물을 기억하라', '4시간 16분 낭독회'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의 개의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